

## [벨기에] 추잉껌과 공정무역 초콜릿 제품의 성장 가능성 보여

영국의 대표적인 식품관련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레더헤드 식품 연구원 (Leatherhead Food Research)에 따르면 벨기에 제과류 시장 자체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공정무역 초콜릿 제품과 추잉껌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더헤드는 최근 식품 산업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벨기에 제과류 시장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010 년 벨기에 제과류 시장규모는 1.12 십억 유로, 한화 1.7 조원에 달해 2006 년보다 8.4%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판매량은 2006 년 126,000 톤에서 2010 년 125,000 톤으로 약간의 감소를 나타냈다. 판매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제과류 시장 자체가 성숙한 데다가 경제불황이 서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공정무역 초콜릿을 제외한 다른 캔디류, 초콜릿류 등과 같은 설탕을 기본으로 한 제과류 제품은 인기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설탕, 버터, 물을 함께 끓여 제조하는 카라멜과 유사한 토피 (toffee)를 꼽았다.

레더헤드 연구원은 벨기에의 추잉껌 시장은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시장으로의 제품 침투율이 초콜릿보다 낮다는 것과 1 인당 소비량이 0.5kg 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적다는 점, 그리고 특히 무설탕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서유럽 지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벨기에 추잉껌 시장은 12%가 성장하였다. 크라프트 (Kraft)사가 추잉껌 시장의 5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벨기에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Stimorol'이라는 브랜드 덕분이다.

레더헤드에 따르면 벨기에는 국민의 21%가 매일 초콜릿을 섭취할 정도로 서유럽에서 1 인당 초콜릿 섭취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초콜릿 섹터 내에서 공정무역 초콜릿 시장의 성장이 감지되고 있다. 벨기에 가구 중 20%가량이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벨기에 초콜릿 시장은 전체 제과류 시장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 년에는 2006 년 이후 11%가 성장한 689 백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주로 밀크 초콜릿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 초콜릿 판매량의 60%가 밀크 초콜릿으로 나타났으며, 다크 초콜릿의 판매 비중은 32%로 조사됐다. 크라프트 (Kraft)사가 시장점유율 36%로, 시장점유율 1 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네슬레 18%, 자사 라벨 제품 14%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500 여개의 소규모 초콜릿 수공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최대 제조업체는 길리안 (Guylian)으로 2008 년 아시아 제과업체인 롯데에 의해 105 백만 유로에 인수된바 있다.